

■ 법률 칼럼

### 최근 시민권 심사 경향



#### 1. 프로디 이슈에 대한 강경한 입장 지속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경우 시민권 신청이 계속 거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는 좀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하셨던 기간을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므로 영주권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논리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서류에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미래에 영주권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취업이민으로 취득하시고 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 대해서도 이민국은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 인터뷰 시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신 증거들 W-2, paystub 그리고 관련 세금보고서 등의 제출

을 요구받을 수 있고 그 서류가 없는 경우 영주권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나 이민관에 따라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이민관들이 그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취업 여부는 영주권의 유효성(Validity)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에 케이스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 3.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의 시민권 신청

인터뷰 시에 자세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범죄가 중범(Felony)인지 경범(Misdemeanor)인지 그리고 경범인 경우도 도덕적 흠결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 Crime)로 이민관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신 다음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매장, 화장, 친환경 매장

오늘의 제목 '매장, 화장, 친환경 매장'은 미국 장의사로서 그리고 방부처리사로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남기는 시신을 어떻게 하리라는 생각의 변화이다.

내가 한국에서 자랄 때 망자는 거의 매장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민 온 미국에서도 응당 매장을 바른 시신 처리 방법으로 여겼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매장(미국식)을 하였다.

미국에서 가족 혹은 지인의 장례에 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큰 장례나 작은 장례나 환송예식 후에 관 속에 누워 계시는 망자를 보는 순서가 있다. 이것을 영어로 Viewing(뷰잉)이라고 한다(이것은 미국의 독특한 장례의 방법이며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관습으로 행하여지고 있는지는 이전에 설명하였다). 이렇게 망자를 보는 뷰잉을 하려면 시신 방부 처리가 요구된다. 미국 정부 기관인 FTC, 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관리 규제하고있다.

시신 방부 처리는 전문대학을 나오고 2년의 견습 기간을 마치고 국가고시를 합격한 전문인이 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인이 몸의 동맥과 정맥 혈관을 찾아 동맥에 많은 양의 화학액을 주사하고 정맥에서 체내의 피를 빼낸다. 그리고 내장에 적지 않은 양의 방부액을 투입한다. 이렇게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킨다.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꼼꼼히 생각해 되었다. 과연 이 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죽은 후 부고를 받고 온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할까? 무엇보다도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나의 신체에 수겔톤의 화학액을 투입하는 사실은 반갑지 않은 사실이다. 그래서 무지 속에 생각해 온 매장에서 화장으로 선택을 바꾸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래전 말하였다. 아빠가 죽으면

화장해서 할아버지 묘에 함께 묻어라.

요즈음 친환경 매장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본인도 최근에 알았다. 미국에서 친환경 매장(Green Burial, Natural Burial)이라고 부르나 사실 우리 한국 전통적인 장례 방법이다. 시신은 깨끗이 씻고 삼베와 같은 잘 썬 옷을 입혀 세마포에 싸고 깊이 판 묘지에 안장 후 흙을 메워 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보내드리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라.

대도시의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남가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친환경적 매장 즉 곁관 없이 쉽게 썩을 재질로 만든 관을 사용하며 묻을 수 있는 묘지가 여럿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 가까운 공원묘지를 사용하기에 제약을 받는다.

우리보다 일찍 미국에 이민 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화장은 하지 않고 빨리 매장을 한다. 육신이 흙에서 왔기에 가능한 빨리 흙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서 시신 방부 처리도 하지 않는다. 관은 금속물질 사용하지 않는 나무관을 쓰며 곁관도 바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이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법 안에서 자기네 생활방법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지혜를 장례에서 보고 배운다.

많은 죽음을 대하고 많은 시신을 준비시켜 드리고 또 많은 가족을 만날 때 나도 많은 것을 배운다. 내 몸에 최대의 예를 갖추고 매듭짓고 싶어 또 다시 친환경 매장으로 기운다.

이호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